

올바른 농약사용과 농촌지도



이상석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장

1. 머릿말

농산물의 안전생산과 품질향상은 각종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농민이 실천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병해충 방제의 수단으로 대부분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농약공해 없는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면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잘 막을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농사를 잘지어야 할텐데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국제화시대의 농산물가격 급변과 국민건강을 의식한 무공해 농산물 선호에 따른 소비저하의 우려때문이다. 또한 농촌노동력이 부족하고 노임이 비싸져 적기방제가 어려운 것도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2. 농약사용상의 문제점

가. 농촌인구및 의식구조변화

농민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부녀자가 영농주로 대두되고 있어서 농약사용 기술침투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개인 중심의 영농화 지향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적기농약살포에 크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나. 농산물 재배 다양화

소득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주년생산(周年生産)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농약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수입 농산물이 늘어남으로 국내생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하게 되어 방제의 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 농약공급상의 문제

농약종류가 많고(이웃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적지만) 사용방법이 다양하여 농민이 자율적으로 적정농약을 선택하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

시판농약 공급확율이 증가됨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불필요한

농약이 추천되는 사례도 있다.

농약 다중혼용(多種混用)이 많고 혼용가부표에 의해 혼용하지 않으므로 약해는 물론 약효저하의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라. 안전사용기준 준수미흡

아직도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농민이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고발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더욱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유통과정중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부패방지 목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농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 방제기술 지도

작물별로 발생하는 병해충의 방제적기에 농약을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방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도 방제적기 판단이 미흡할 뿐 아니라 관행적 실시로 농약이 남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작물별 효율적 방제

기구 부족, 농약중독사고, 취약 농가의 방제 등의 문제가 있다.

3.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90지도방향

가. 예찰에의한 방제적기결정

예찰활동을 통하여 조사자료를 종합분석 함으로서 방제적기를 결정하게 된다. 각군에 1개씩의 예찰소가 있어 예찰포와 예찰장비를 설치하고 전문예찰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벼 보리등 식량작물을 비롯한 과수, 마늘, 양파, 고추등 소득작목 관찰포를 설치하고 주요시기에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금년부터 소득작물의 예찰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작물 예찰포를 18개소 설치하여 조사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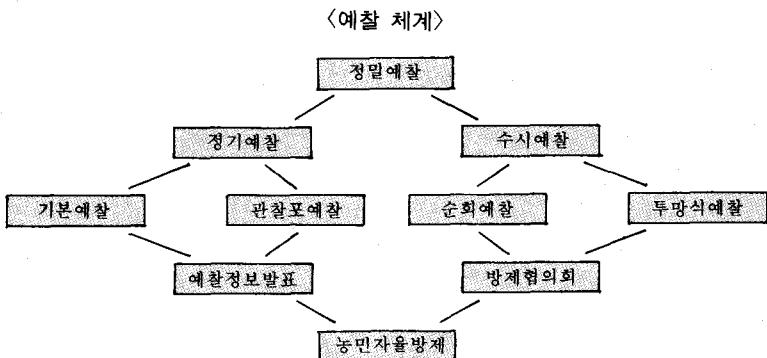
벼멸구 다비래지역에는 형광유아등을 38개소 설치하여 벼멸구 비래상황 조사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경기5, 충남17, 전남북15, 경남1개소 총 38개소).

시군 농촌지도소장 책임하에 예찰반을 편성하여 순회예찰 또는 투망식예찰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에서는 각종 조사자료와 기상전망을 기초로 관계관이 모여(4~9월중) 예

〈예찰소 설치 상황〉

(개소)

'63	'64	'65	'73	'77	'79	'89	'90
10	23	43	48	63	78	151	152



〈'90 식량·소득작물 관찰포 설치〉

계	식량작물		과 수			채 소					특작
	벼	보리	사과	배	소계	마늘	양파	고추	배추	소계	참깨
1,271	957	134	30	15	45	22	13	40	25	100	35

〈소득작물 예찰포 설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양주 이천	원주 영월	청원 충원	서산 논산	정읍 남원	무안 고흥	예천 영천 의성	창녕 합안	북제주
18	(2)	(2)	(2)	(2)	(2)	(2)	(3)	(2)	(1)

찰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 예찰정보를 발표한다. 이때 농촌진흥청은 작물별 병충별 발생추세·전망등을 발표하고 도농촌진흥원에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방제요령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회수도 2주에 1회로 하되 긴급을 요할때는 수시로 발표하게 된다.

또한 정보내용은 전산망이 이

용, 전송토록 하여 신속한 전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각종 조사자료가 입력되어 전산분석과 동시에 도시군까지 전산망이 연결되면 전국 동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나. 방제적기 통보

예찰을 통하여 얻어진 방제적기를 신속하게 농민에게 통보하

〈조사자료 입력 및 분석 모형 개발 활용〉

구 분	'86	'87	'88	'89	'90	'91	'92
기초조사 및 모형개발 방향설정							
도열병 포자 및 유아등 해충채집자료							
벼 예찰포 조사자료							
벼 관찰포 조사자료							
소득작물 예찰포 관찰포 조사자료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예찰 정보와 자체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방제협의회를 거쳐 기본방제 통보서를 작성하여 행정·농협 및 농조등 유관기관과 농민(이동장, 방제단장)에게 송부하고 동시에 부락애프방송과 지역방송(TV 또는 라디오)을 실시한다.

기본방제 대상 이외의 시기 또는 지역에서는 순회 예찰 결과를 수시로 농민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방제에 임하도록 한다. 통보기를 수립하여 농민이 통보 내용을 알도록 하는 시군도 있으나 농민기술수준의 향상과 전화 및 교통의 발달로 그 실효성이 저하되어 시군 농촌지도소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농촌지도사의 전문화가 필요하여 지소가 본소로 통합됨에 따라 순회예찰의 지도인력이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자기포장에 나타나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여 방제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며 심할 경우는 현지출장을 요구하

〈'90 취약농가 현황〉

	호 수	면 적
계	121.5천호	49.6천ha
출입경작	31.2	13.1
위탁영농	22.2	10.8
보훈가족	5.3	2.4
노 약 자	25.0	10.0
특수2모작	32.7	10.9
기 타	5.1	2.4

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발생정보와 방제요령을 녹음하여 전화로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날 상담지도사를 파견하기도 할 것이다.

다. 적기방제지도

적기방제통보에 따라 방제에 임하도록 하여 지역별 문제 병해충을 중심으로 동시방제를 지도하여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할 것이다.

취약농가인 출입경작자, 위탁영농, 보훈농가, 노약자, 특수2모작 농가등은 카드화하여 중점지도 하도록 할 것이다.

전국 33,579개의 공동방제단과 용역방제단을 활성화하여 방

〈'90 방제단 조직 현황〉

계			공동방제단			용역방제단		
단수	면적	농가	단수	면적	농가	단수	면적	농가
33,579	천ha 937.5	천호 1,330.7	28,962	791.5	1,130.2	4,617	146	200.5

제의 효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주요 병해충 방제시기에는 TV, 라디오, 신문, 앰프방송등 각종 매체를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라. 농약안전사용

올해에는 모든 농민이 기필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년 9월 1일부터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고발토록 되어 있어 한 농민도 고발되지 않도록 능동적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교육기회 확대

농약안전사용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농민이 교육을 통하여 확실히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90 농약안전사용 교육〉

구분	대상	인원
겨울농민교육	농민	1,333천명
특별교육	농민·공무원	206 〃
농약상교육	시판농약상	3 〃
농민후계자교육	후계자	1850명
소득작목전문교육	농민	900 〃
기본농민교육	농민	70,000 〃
농협직원교육	농약담당	750 〃
농촌지도공무원교육	공무원	4450 〃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행정 지도 농협 그리고 농약업계등 모두가 협력하여 교재는 물론 슬라이드 비디오등을 활용하여 실효를 견우도록 할 것이다.

(2) 현장지도 강화

순회지도시 작물별 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 및 살포작업시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적극 지도 해 나갈 것이다. 농약사용은 병

해충의 완전방제라는 개념을 떠나서 소득위주의 안전농산물 생산이라는 의식을 농촌지도공무원뿐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현장 지도할 것이다.

병해충 예찰에 따라 적기방제 하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생산된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시험사업도 전개할 것이다. 농약사용 실태를 100여 농가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발굴, 지도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약중독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키도록 지도할 것이며 농민상담실에 방제복과 해독제등을 비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농약 빈병 폐비닐등을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수거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3) 홍보활동 강화

홍보활동 강화로 농민 소비자 농약판매상에게 농약안전사용과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도록 할 것이다.

농약공업협회와 협조하여 TV

(광고포함), 신문, 비디오, 슬라이드등을 활용하고 각종 유인물은 읽고 실천하는 자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딸기, 오이, 토마토, 고추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농약 안전사용수칙판을 제작하여 보면서 실천토록 하고 생산자 소비자 대학 업계 및 유관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농약안전사용협의회를 실시할 것이다.

4. 맺는말

농약은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밀예찰로 방제적기를 판단하여 통보함으로써 방제회수를 줄이며 효과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약을 될수록 적게 사용하면서 안전사용기준에 맞는 수확전 일수와 방제회수를 꼭 지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가 촉진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